

“교육·연구·전시...민주주의·인권 가치 실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개관 10년

광주 금남로 플랫폼 90만명 발걸음...작년 방문객 70% ↑ 3만여건 기록·379만면 DB 구축...공공 아카이브 역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개관 10년을 맞으며 ‘민주시민 교육의 현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군사법정의 자료, 피해자의 병원기록, 일기 등을 통해 5·18의 의미를 현재화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다.

11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13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 문을 연 기록관은 지난 10년간 교육·전시·연구 기능을 결합한 공공 아카이브로서 역할을 확대해 왔다. 국가 폭력의 진실을 기록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거점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2015년 5월13일 광주 동구 금남로 221에 개관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옛 광주카톨릭센터)은 교육·전시·연구 등의 활동으로 5·18정신 확산, 기록물 공개 확대, 디지털화를 통한 접근성 향상으로 국가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 아카이브 역할을 해냈다.

기록 축적 규모도 꾸준히 늘었다. 개관 당시 2만여건이던 기록물은 현재 3만371건으로 증가했다. 약 1만건이 추가로 발굴·수집되면서 기록관의 연구 기반도 한층 두터워졌다. 이는 국내외 소장기관과 개인 기증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5·18 기록물을 확보해 온 결과로 분석된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경

특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 관련 기록은 공공기관 문서, 군사법정 자료, 시민 선언문 등 9개 유형으로 구성된 역사적 가치와 국제적 위상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다.

기록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기반도 크게 강화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통합 DB 구축 사업을 통해 전국에 흩어져 있던 379만여면(마이크로필름 등)의 기록물이 전산화됐다. 이는 향후 진상규명과 학술 연구의 핵심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기록관은 연구기능 확대에도 힘을 쏟아

왔다. 전남대학교, 한양대학교, 5·18기념재단 등과 함께 2017년부터 학술조사와 포럼, 특강을 이어오며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추진해 왔다.

전시 기능 역시 꾸준히 확장됐다. 상설 전시실은 ‘오월의 기록, 인류의 유산’을 주제로 항쟁과 기록, 세계 인권 기록유산 아우르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기록관 6층에는 19080년 당시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이었던 윤공회 대주교의 집무실을 복원, 1908년 5월의 참상을 외부에 알렸던 역사적 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전과 교류전도 활발하게 이어졌다. 2015년 5월 ‘역사의 강은 누구를 보는가’ 기획전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71회의 전시가 개최되며 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혀왔다.

이 같은 활동은 방문객 증가로 이어졌다. 2025년 12월 기준 누적 방문객은 90만899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5년 방문객은 24만9301명으로 전년 대비

71.5% 증가하며 기록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기록관이 운영 중인 전일빌딩245 내 5·18 기념공간 역시 방문객이 2024년 9만1348명에서 2025년 58.8% 증가한 14만5148명으로 늘었다. 이중 5·18기념공간은 헬기 탑승 보존과 VR 체험 등을 통해 5·18의 진실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며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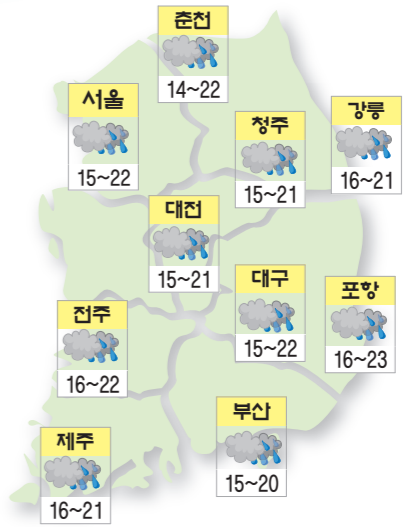
기록관은 국가기록원, 광주시교육청, 민족문제연구소, 제주4·3평화재단 등과 협약을 맺고 교류·연대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5·18을 넘어 한국 현대사의 기억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넓히고 있다.

김호균 기록관장은 “기록관은 단순한 기억의 저장소를 넘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기록 해석과 활용을 강화해 교육과 공공 활용의 핵심 기반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맑음	05:31	달림	02:28
맑음	17:58	달림	14:22



광주	15~21
목포	16~20
여수	14~19
순천	14~19
구례	14~19
광주	14~21
신도	15~20
흑산도	14~18
고흥	14~19
진도	14~19

목포	밀물(고)	09:51 / 22:32
	썰물(저)	03:00 / 15:56
여수	밀물(고)	05:24 / 17:54
	썰물(저)	11:44 / 23:47

“잊지 않겠다”...전국 고교생 집단 성명

가해자 엄벌·안전대책 촉구...교사단체도 동참

광주 여고생 흉기 피살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의 모교를 비롯한 전국 고교생들이 집단 성명을 내고 가해자 엄벌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자 A(17)양의 모교인 광주 B고 학생회는 11일 SNS 성명을 통해 “친구의 빈자리를 보며 큰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며 “고인을 영원히 기억하고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엄정한 처벌과 학생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광주 경신여고·설원여고·수안고·송일고·전남여고를 비롯해 강원 속초여고, 대구 상원고 등 전국 학생회와 동아리들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아간 귀가 학생들에게 조기 귀가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학교 주변 순찰과 치안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도 “학생들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에 책임 있는 답을 요구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일부 재학생들은 학교의 추모 방식과 대응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학생들은 “윤구 차량이 들어왔을 때 교실 밖으로 나가려던 학생들을 제지했다”, “추모 시간이나 안전교육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빈소 방문과 윤구 행렬 협 등 지원을 했다”며 “학생 안전과 개인 의사를 고려해 별도 추모 행사는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의 정서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적십자봉사원들, 5·18민주묘역 정화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11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은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 봉사원들이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봉사원들은 흙배를 마친 뒤 묘역 내 비석을 닦은 꽃을 새 꽃으로 교체하며 오월 영령들의 화생을 기렸다. 이날 활동에는 광주봉사단 57구 협의회 소속 봉사원 150여명이 참여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통합교육청 ‘1실 6국’ 추진...재정 지원 과제 부상

광주·전남 교육청 기존 3국 체제에 1실 추가 설치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 교육청이 기존보다 확대된 조직 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다만 교육통합 관련 국비 지원이 불투명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양 교육청과 교육부는 지난 3월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이후 통합추진단을 꾸리고 조직·행정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추진단은 특별시교육청 조직을 ‘1실 6국’ 체제로 구성하고 있다. 현재 양 교육

청이 각각 운영 중인 3국 체제에 더해 2급 고위공무원이 맡는 별도 실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실 아래에는 4개 담당관 체계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산 시스템은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나이스와 K-에듀파인 등 핵심 시스템은 당분간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연계 기능을 개발해 적용하고, 전체 통합은 2027년 하반기 완료로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비용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3400만원으로 총당한다.

반면 통합 준비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 교육청은 정보시스템 구축과 시설 정비, 홍보, 전달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120억여원을 요청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시·도교육청은 예비비와 추경 예산으로 당장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특별법에 통합교육지원금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육 분야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학교 조정과 인사 운영은 당분간 기존 체제를 유지하며, 분청 위치와 세부 인사 체계는 초대 특별시교육감이 결정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직영하니 달라졌다”...광산CC 만족도 91%

광주 광산구 직영 체제로 전환된 친환경 대중골프장 ‘광산CC’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산구는 직영 전환 이후 첫 광산CC 이용객 만족도 조사에서 종합만족도가 91%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광산CC 이용자 18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설문 및 현장 대면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편의성과 공정성, 서비스·친절도, 코스·시설 관리 등 대부분 항목에서 만족도가 90% 이상을 기록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7월1일 직영 전환 이후 쾌적한 라운딩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구는 2011년 광산CC 개장 이후 15년 만에 대대적으로 수목을 정비하고, 계절별 꽃단지를 조성해 아름다운 코스 경관을 마련했다.

또 클럽하우스 정비, 신규 카트 도입 등 시설 개선에 나섰다. 여기에 시민 의견을 반영해 수동과 자동 겸용 전동카트도 운영했다.

직영 공공 체육시설의 혜택을 제할할 수 있도록 한 정책도 마련됐다.

임정호 기자 jh4415@gwangnam.co.kr

광주 자치구, ‘오월정신’ 계승 행사 다채

동구, 오월 기억여행 운영
서구, 인권 현장투어 모집
남구, 송암 등 추모문화제
북구, 오월 특색사업 실시
광산, 역사길걷기 등 진행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광주 지역 자치구들이 나눔과 연대의 오월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1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동구는 오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동구의 오월 기억여행’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문화해설사와 함께 지역 내 5·18 사적지를 둘러보며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긴다. 프로그램은 ‘마을코스’와 ‘민주코스’

등 2개 코스로 진행된다. 16일 열리는 마을코스는 전일빌딩245와 주남마을, 동구 인문학당 등을 방문하며, 민주코스는 23일과 30일 국립5·18민주묘지와 옛 전남도청, 동구 인문학당 등을 탐방한다.

주먹밥 나눔과 여행 토크 등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서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5·18 인권 현장투어’를 운영한다. 오는 21일과 27일 진행되는 투어는 오월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도 광주의 역사와 정신을 생생

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전문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5·18자유공원과 옛 전남도청 등을 방문하고, 농성광장 격전지와 들보야학 옛터, 505보안부대 옛터 등을 둘러보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긴다. 참가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받는다.

남구는 오는 21일 효천역 일원에서 ‘그날의 숨결, 오늘의 울림’을 주제로 송암·효천 5·18 희생영령 추모 문화제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추모사 낭독과 공연, 영화 상영 등이 진행된다.

또 18일에는 민주화 성지 방문 활성화 를 위해 마을버스 715번 무료 승차를 지원한다.

북구는 청년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오월 특색사업’을 오는 22일까지 추진한다. 이들은 518번 버스 노선을 따라 5·18 사적지 18곳을 방문해 사진 내용을 정리한 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리플릿 형태로 만들어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15일과 18일에는 청년 공직자들이 직접 작성하고 녹음한 ‘함께 듣는 오월 이야기’를 구청 구내방송으로 송출한다. 오는 22일에는 북구청 광장에서 헌혈 캠페인도 진행한다.

헌혈증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등에 기부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15일부터 19일까지 광주송정역에 5·18 안내소를 설치·운영한다. 문

화해설사와 자원봉사자들이 방문객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기념 행사 일정, 사적지 정보 등을 안내한다.

또 광주송정역에 제3호 5·18 사적비를 설치하고, 16일 윤상원기념관에서 5·18 역사길 걷기와 추모행사, 주먹밥 만들기 체험 등을 진행한다. 16~17일에는 ‘천도마을 하루나기’ 프로그램을 통해 밴드 공연과 체험행사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46년 전 오월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민주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